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Relation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Under Graduate Students of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김경식*, 김찬선**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사회체육학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시큐리티융합경영**

Kyong-Sik Kim(kks7@hoseo.edu)*, Chan-Sun Kim(atom7942@hanmail.net)**

요약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2년 서울, 경기도 소재 3개 대학의 경호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최종 130명을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는 외생변수의 경우 .664, 내생변수의 경우 .787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을 위하여 AMOS 18.0과 SPSS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결정 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신체적열등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신체적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곱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 중심어 : | 경호전공 대학생 | 진로장벽 | 진로결정 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

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s structure pattern about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under 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conduct and reality adaptability wishes to deduce high theoretical pattern. Then, I wish to verify causality of variables included in pattern. This study established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of 3 university by population to Seoul, Gyeonggi Province in 2012. Using purposive sampling method, 130 samples were drawn and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verified to be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of questionnaire came out to be over exogenous variable value .664, endogenous variable value .787. In this study, utilizes AMOS 18.0 and SPSS WIN 18.0 programs for reliability analysis and took advantage of technique of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conclusion is following : First,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self-clearness shortage exerts contradictory influ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Second,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self-clearness shortage does not a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problem about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age exerts contradictory influ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Fourth, problem about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age does not a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fth, physical inferiority complex of a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does not affect in career decision efficacy. Sixth, physical inferiority complex of a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does not a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venth,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course decision efficacy a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keyword : | private security guard major | Career Barriers | Career Decision 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I. 서론

지난 20세기까지 인류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화 사회를 이룩하여 왔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전 세계는 자유주의를 추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자유주의는 인간의 삶을 질을 향상 시켜 주는 획기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함께 수반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21세기에서는 물질만능주의 사상과 이기주의적 사상이 팽배해 지면서 탈사회화가 이루어졌다.

탈사회화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에서 배운 내용을 버리는 과정[14]으로 인류는 과거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한 채 개인의 만족과 쾌락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사회불안을 초래하였다. 사회불안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갈수록 지능화·홍포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공경비)의 치안 능력도 이미 포화상태에 봉착하였다.

그 대안으로 민간경비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 민간경비산업은 1800년대 미국 서부개척시대 에서부터 시작된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미군 부대 외곽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작된 산업이다. 민간경비산업은 수익자부담원칙(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을 토대로 하는데,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지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민간경비산업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당시인 1960년대에는 이들 민간경비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군부대 외에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았지만, 1976년 한국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1993년 대전 세계 엑스포와 같은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수요는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민간경비원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경호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경호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 2010년 기준 전국에 경호 관련 학과는 대략 전문대 41개, 4년제 26개 총 67개가 운영되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전국의 경호 관련 학과는 1995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안전관리학과를 기점으로 지금도 약 60여개의 경호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경호 관련 학과는 대부분 체육계열로 분류되어 있으며, 교과목도 체육학과와 공경비에 대한 일반적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초창기 경호학과를 개설할 당시 지도자가 대부분 체육학 학위 소지자 또는 대통령 경호처(공경비)에서 근무경력자들이 학과를 운영해 오면서 형성된 교육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찬선[3]에 의해 수행된 민간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호전공 관련 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배웠던 체육관련 과목과 공경비 관련 과목은 실무에서 일부분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가장 필요한 내용은 경영학 관련 교과목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의 수많은 경호전공 대학생들은 일선 민간경비 현장으로 직업사회화를 성취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으로 어떠한 교육과정 이수과 진로장벽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즉, 경호전공 대학생들에게 학습의 효과 증진과 나아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진로준비행동을 결정짓는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호경비학 연구영역에서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김종걸[7], 백경화, 유경호[9], 이영오[10]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경호전공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고 관련 이론을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종걸[7]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보고함으로써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경호전공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변수간의 관계가

아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규명하여 인과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구조 모형 분석은 변수들간의 직·간접적 인과효과를 규명할 수 있으며,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조정에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경호경비학 지식체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일선 경호 관련 학과에서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 및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현실 적합도가 높은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 다음,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진로발달과정을 방해하고 직장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시작되었다[21]. Swanson 과 Daniels[29]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직업이나 진로계획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London[30]은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합으로 진로장벽이 구성되며, 상실, 핸디캡, 변화, 갈등, 직업요구 사항과 기대의 증가, 차별, 부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들로 인하여 진로장벽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7].

진로장벽에 대한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을 진로장벽의 개념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내적장벽은 심리적측면의 장벽들을 말하며 외적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을 말한다. 이러한 장벽들은 진로선택, 취업, 직장생활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생활을 해

나가거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28].

이와 관련하여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를 준비, 계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자기명확성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진로장벽 요인들은 진로결정효능감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진로결정효능감은 다시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로장벽이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 김종걸[7], 백경화, 유경호[9]의 연구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인과관계를 부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당위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2.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능력으로서 관심분야결정능력, 자기직업결정능력, 진로선택명확성, 진로대처능력을 말한다. 진로결정효능감은 Bandura[16]의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Bandura[16]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판단 신념이라고 하였다. Hackett과 Betz[18]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최초로 진로에 적용하였으며, 진로선택과 관련된 진로자기효능감이라고 명명하면서 부각되었다.

자기효능감의 원천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수행 성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효능감의 원천으로 일반적으로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 둘째,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경험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얻는다. 셋째,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어적으로 설득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동기화되고 그 노력을 지속하기 쉽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이 긍정적인 기분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우울한 기분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비효율적으로 판단한다[7]. Talyor와 Betz[19]는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진로결정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는 진로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가정할 수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을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변수로 적용하여 선행된 연구는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지영 등(2012),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형원, 손은령(2011) 등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매개역할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완비 활동, 설정 목표성취 노력이라 할 수 있다[5].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진로결정수준이 높더라도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경우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더라도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5][26], 이는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수 이루어 졌지만 경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김종걸[7], 백경화, 유경호[9], 이영오[10] 등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졌을 뿐이다.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호경비학 연구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경호학 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가정 및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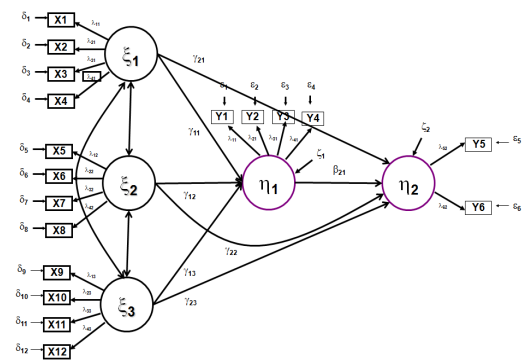


그림 1.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

[그림 1]에 의하면, 진로장벽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가정하였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변수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이자 내생변수로 가정하였다.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모형의 측정구조에 있어서 외생변수 및 내생변수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모형의 설명

구분	이론변수	측정변수
외생 변수	진로장벽	ξ_1 : 자기명확성 부족 ξ_2 : 나이문제 ξ_3 : 신체적 열등감
		x1:우유부단함, x2:주장부족, x3:결정후회, x4:결정 힘듦 x5:빠른 진로결정, x6:하고 싶은 일 놓침, x7:진로결정 뒤처질까 고민, x8:진로계획 경쟁력 약화 x9:신체적 열등감, x10:신체적 건강, x11:신체적 긴장감, x12:시대적 흐름변화
		Y1 관심분야결정능력 : 관심직업정보 획득, 희망전공 선택 등 Y2 자기직업결정능력 : 이상적 직업 이해, 향후 미래직업 이해 Y3 진로선택명확성 : 5년간 계획, 직업목록 중 직업선택 Y4 진로대처능력 : 학업상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 이해, 올바른 이력서 작성
내생 변수	진로결정효능감 (η_1)	
	진로준비행동 (η_2)	Y5 진로상담 : 친구, 부모, 교수와의 진로상담 등 Y6 진로탐색 : 진로관련 서적 구독, 관심분야 기관 방문계획 등

2.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가설 1.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신체적열등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신체적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호학 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9월 3일 ~ 9월 21일) 서울, 경기도 소재 경호 관련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3개 대학(H, K, Y)의 경호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유의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142부를 회수하였다. 학년을 고려한 표집배경을 설명하면 이 연구에서는 2년제

전문대학 1개 대학과 4년제 2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2년제 전문대학에서는 1, 2학년에서, 4년제 대학에서는 3, 4학년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1, 2학년과 3, 4학년별 진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학년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보여주고 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극단치(12부)를 적용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수는 총 130명이다. 표본의 크기는 최우추정의 경우 100명 이상이면 적용에 적절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27]. 따라서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모형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표본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남성	94	72.3
	여성	36	27.7
연 령	20세이하	71	54.6
	21-23세	45	34.6
	24세이상	14	10.8
학 년	1학년	30	23.1
	2학년	50	38.4
	3학년	28	21.5
	4학년	22	16.9
공인 자격증 수	없음	21	16.2
	1-2개	50	38.5
	3-4개	45	34.6
	5개이상	14	10.8
전 체	130	100%	

표 3. 학년 집단 동질성 검증

구 분	자기명확성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학년	1, 2학년	2.558±.948	2.241±.664	2.083±.627	3.386±.599	2.970±.515
	3, 4학년	2.571±.803	2.518±.759	1.996±.759	3.612±.525	2.987±.659
t 값	-.075	-1.760	.556	-1.935	-.132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4문항, 진로장벽 12문항, 진로결정효능감 12문항, 진로준비행동 10문항 등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공인자격증 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장벽,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설문지는 김봉환[5], 김종걸[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진로장벽,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경호학 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대한 예비검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경호안전학 박사 2인 등 총 3인의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내용 타당도와 설문지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진로장벽,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문헌고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4]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설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5]는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외생변수의 경우 .431이상, 내생변수의 경우 .422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카이스퀘어값과 유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수들이 적합기준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카이스퀘어값은 사례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카이스퀘어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할 때에는 다른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적합도 검증 결과로 볼 때 측정모형은 현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는 .664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6].

표 4.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이론변수	표준치	오차
외생 변수	진로장벽	【자기명확성부족】		
		x1: 유유부단함	.770***	.409***
		x2: 주장부족	.693***	.450***
		x3: 결정후회	.677***	.537***
		x4: 결정 힘들	.784***	.409***
		【나이문제】		
		x5: 빠른 진로결정	.419***	.733***
		x6: 하고 싶은 일 놓침	.553***	.827***
		x7: 진로결정 뒤처질까 고민	.569***	.262***
		x8: 진로계획 경쟁력 약화	.655***	.766***
		【신체적 열등감】		
		x9: 신체적 열등감	.757***	.822***
x10: 신체적 건강	.685***	.636***		
x11: 신체적 긴장감 시대적 흐름 변화	.572***	.933***		
x12: 시대적 흐름 변화	.431***	.950***		
내생 변수	【진로결정효능감】	y1: 관심분야결정능력	.555***	.371***
		y2: 자기직업결정능력	.859***	.105***
		y3: 진로선택명확성	.685***	.245***
		y4: 진로대처능력	.532***	.466***
	【진로준비행동】	y5: 진로상담	.952***	.042
		y6: 진로탐색	.422*	.513***

* $p < .05$ *** $p < .000$

표 5.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모형 검증의 전반적 지수

전반적 지 수	χ^2 (Sig)	기초부합 지수 (GFI)	조정부합 지수 (AGFI)	근소평균 자승오차 (RMSEA)	비교부합 지수 (CFI)
측정모형	104.167/.163	.908	.902	.033	.979
적합기준	$p > .05$	$\geq .90$	$\geq .90$	$\leq .08$	$\geq .90$
판정결과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표 6.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 신뢰도

변수	하위요인	Cronbach's α
진로장벽	자기명확성부족	.889
	나이문제	.843
	신체적 열등감	.664
진로결정효능감	관심분야 결정능력	.787
	자기직업결정능력	.876
	진로선택명확성	.898
	진로대처능력	.796
진로준비행동	진로상담	.809
	진로탐색	.812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의 경호전공 대학생들

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극단치(outlier)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130명을 이용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AMOS 18.0과 SPSS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처리방법으로 첫째,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연구모형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모형 검증

[표 7]은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7]에 의하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χ^2 값이 132.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alpha=.000$)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등이 적합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합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일은 무의미한 것으로 사료된다[11]. 이러한 경우에는 무의미한 경로제거, 공변량 자유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12].

표 7. 초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전반적 지수

전반적 지수	χ^2 (Sig)	기초부합 지수 (GFI)	조정부합 지수 (AGFI)	근소평균 자승오차 (RMSEA)	비교부합 지수 (CFI)
구조모형	132.932/.000	.883	.831	.057	.938
적합기준	$p>.05$	$\geq .90$	$\geq .90$	$\leq .08$	$\geq .90$
판정결과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2. 수정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제

외하고 공변량을 자유화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즉, 자기명확성부족 →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신체적 열등감 →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경로를 제외하였다. 공변량은 e6과 e9, e7과 e10을 자유화 하였다. [표 8]은 모형 개발 제안 과정에 따라 모형을 수정하여 제안모형을 도출한 결과이다.

[표 8]에 의하면 수정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경로를 제거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8.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전반적 지수

모형	χ^2 (Sig)	기초부합 지수 (GFI)	조정부합 지수 (AGFI)	근소평균 자승오차 (RMSEA)	비교부합 지수 (CFI)
수정모형	96.183/.390	.917	.907	.016	.99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비교	▼	▲	▲	▼	▲
판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 가설검증

[표 9]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9. 가설검증

가설	가설 경로	경로계수	유의도	채택여부
1	자기명확성부족 → 진로결정효능감	-.339	.009	채택
2	자기명확성부족 → 진로준비행동	-.042	.768	기각
3	나이문제 → 진로결정효능감	-.327	.007	채택
4	나이문제 → 진로준비행동	-.037	.793	기각
5	신체적열등감 → 진로결정효능감	-.145	.244	기각
6	신체적열등감 → 진로준비행동	.213	.129	기각
7	진로결정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627	.000	채택

[표 9]에 의하면,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결정효능감($r=-.339$),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r=-.327$)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beta=.627$)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3, 7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 4, 6은 기각되었다. 다음 [그림 2]는 [표 9]의 가설검증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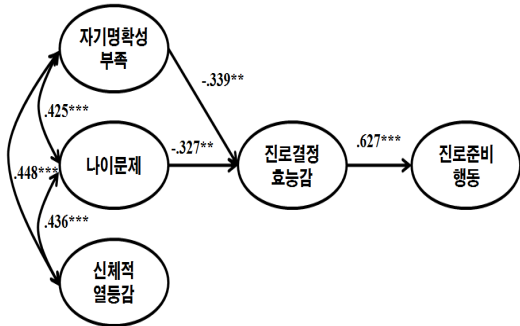


그림 2.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

4. 인과효과 분해

[표 10]은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효과 분해한 결과이다.

표 10. 인과효과 분해

가설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인과 효과
자기명확성부족 → 진로결정 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	-0.339×0.627	-0.213
나이문제 → 진로결정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	-0.327×0.627	-0.205
총효과		-0.418	

[표 10]에 의하면,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효과($-0.339 \times 0.627 = -0.213$)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효과($-0.327 \times 0.627 = -0.205$)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선행 연구 및 이론을 토대로 먼저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크게 모형과 가설 검증 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배[15], Anderson과 Gerbing[12]의 모형 개발 제안 과정에 따라 연구모형을 수정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토대로 하여 측정오차간의 공변량을 자유화시켰고[1],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경로를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치는 36.1이 감소하였으며, .39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치 이외에도 다른 전반적 지수를 살펴보면 다른 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제안모형은 현실과 모형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경호학 전공대학생들이 성공적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직업에 대한 자기명확성과 실무에서 나이(연령제한) 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진로결정효능감이 감소되고 이것이 결국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경호학 전공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설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결정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시 공경비(경찰, 대통령 경호원) 또는 민간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성이 없는데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호전공 관련 학과에서는 공경비에 많은 비중을 두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를 졸업한 후 공경비로 직업사회화에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문 반면, 상당수의 경호전공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민간경비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이 전공 선택 후 선배 또는 동료들과 같은 경로를 통해 민간경비원들의 근무여건, 급여, 여가시간, 후생복지와 같은 부분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졸업 후 경호분야와 관련된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4]. 즉, 경호전공 대학생들이 자기명확성이 부족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함으로써 갖게 되는 진로결정효능감은 감

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종걸[7]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따라서 경호전공 대학생들이 자기명확성과 진로결정효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 개설 증대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직업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산·학협력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호전공 학생들이 나이가 진로결정효능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김종걸[7]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이와 관련된 문제는 경호·경비와 관련된 여러 직업(시설경비, 신변호보,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에서 문제점으로 대부분 지적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경호현장에서만 반복되어지는 문제로 국한시킬 수만은 없을 것이다. 나이와 관련된 업종 중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선수들은 그 생명이 20대를 넘기기가 대부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엘리트 체육 선수들은 지도자, 마케팅, 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로 전공을 개척하여 나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직업사회화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경호전공 학생들은 일선 경호 현장에서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을 비롯해 보안장비제작회사, 보안컨설팅, 시큐리티경영관리사, 학교 안전지킴이 등과 같은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명확성, 관심분야 결정 능력, 자기직업결정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현실성 있는 교수면담을 통해 진로결정효능감을 증대시켜 준다면 진로준비행동은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걸[7], 태권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태승[8] 등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16][17]에 따르면 대학생

들은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크고, 진로 의사결정효능감이 클수록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탐색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구직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준비 행동은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실 정으로 볼 때, 경호전공 대학생들이 공경비와 민간경비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대략 30% 수준이며, 일선 경호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호원들 중 약 50%에 이르는 경호원들이 경호학문 전공자들이 아닌 체육학 전공생들이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호학을 전공한 젊은 대학생들이 타 업종으로 구직을 희망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은 산·학 협력을 통해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결정 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명확성이 부족할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은 약화된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즉, 나이문제를 느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은 약화된다.

넷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신체적열등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신체적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곱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진로결정효능감이 클수록 진로준비행동은 강화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을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변수만으로는 진로준비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변수들을 설정하여 사회 현상의 설명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과 졸업후 직업사회화 과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경식, “사회체육 참가자의 여가제약 극복 과정 구조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2권, 제1호, pp.61-76, 2009.

[2] 김경식, 김찬선, 박영만, “시큐리티요원의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제약과 참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2호, pp.826-835, 2009.

[3] 김찬선, “민간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한국경찰학회지, 제15권, 제1호, pp.93-123, 2013.

[4] 김찬선, 김상진, “민간경비원의 임금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2호, pp.89-116, 2006.

[5]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1977.

[6] 김재근, 자기효능감, 학교학습동기, 사회적 지지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2004.

[7] 김종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7.

[8] 박태승,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멘토링 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5권, 제1호, pp.491-503, 2011.

[9] 백경화, 유경호, “경호학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9호, pp.115-137, 2011.

[10] 이영오, “경찰,경호관련 대학생의 전공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치안행정논집, 제4권, 제2호, pp.131-144, 2007.

[11] 임변장, 김경식, “관람스포츠소비행동 구조모델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5권, 제1호, pp.31-46, 2002.

[12] J. C. Anderson and D. W. Gerbing, “The effect of sampling error on convergence improper solutions and goodness-of-fit indices for maximum likeliho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49, pp.155-173, 1988.

[13] www.naver.com

[14] http://somakorea.tistory.com/190.

[15] 조선배,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1996.

[16]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M. E. Betz, K. L. Klein, and K. M. Taylor, 1997.

[17] D. L. Blustein,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 of vocational behavior*, Vol.35, pp.194-203, 1989.

[18]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19]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20] 김은희,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타협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2010.

[21] J. O. Crites,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969.

[22] L. S. Gottfreson,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Vol.28, pp.545-579, 1981.

[23]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5권, 제1호, pp.19-35, 2012.

[24] 허형원, 손은령, "재한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4권, 제1호, pp.51-66, 2011.

[25]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2009.

[26] 박윤아,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11.

[27] J. W. Hoelter,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Goodness of fit indic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11, pp.325-344, 1983.

[28] 고태용,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8.

[29] J. L. Swanson and K. K. Daniels,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94.

[30] M. London,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 of Career Development, Vol.24, No.1, 1997.

저 자 소 개

김 경 식(Kyong-Sik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상업스포츠 소비행위, 실버스포츠산업, 여가 및 체육정책, 사회자본, 사회연결망

김 찬 선(Chan-Su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교육학사)
- 2003년 7월 :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교육학석사)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경호안전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시큐리티융합경영전공 교수
 <관심분야> : 시큐리티 경영학, 시큐리티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시큐리티 사회연결망